



롯데건설, 세정스타즈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롯데건설이 울산 북구 신현동에 위치한 베이스타즈CC에서 세정스타즈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공동협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골프장 및 리조트 연계 혜택 등을 제공한다. 이부용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장(왼쪽 세번째)과 정상현 세정스타즈 대표이사(네번째)가 업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SKT '데보션 영' 개발자 생태계 공유문화 확산 대학생 테크 인플루언서 모집

SK텔레콤은 개발과 프로그래밍 관련 콘텐츠를 창작하며 개발자 생태계 내 소통과 공유 문화를 확산시킬 대학생 테크 인플루언서 '데보션 영(DEV OCEAN YOUNG)'을 모집한다.
 1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데보션 영'은 개발자 커뮤니티 '데보션'에서 활동한다. 개발자들을 위한 '영감의 바다'(Developers Ocean)라는 뜻을 가진 '데보션'은 SKT가 작년 6월 SK하이닉스, SK(주) C&C,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 SK ICT패밀리 소속 개발 전문가들과 외부 개발 인재간 소통을 위해 만든 개발자 커뮤니티다.
 '데보션 영'에 선발된 대학생들은 7월부터 5개월 동안 개발과 프로그래밍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데보션'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SK ICT 패밀리 소속 개발자의 밀착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채윤정 기자



코웨이 휠체어농구단, KWBL 휠체어농구리그 참가
 코웨이 휠체어농구단이 '2022 KWBL(한국휠체어농구연맹) 휠체어농구리그'에 참가한다. 창단 후 코웨이 소속으로 첫 정규리그에 참가하는 코웨이 휠체어농구단은 지난 17일 제주 삼다수와 개막전을 시작으로 5개의 팀과 정규 리그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코웨이

인사

- ◆인천항만공사 <3급 승진> △ESG경영실 오연선 △기획조정실 박현진·장정원 △물류전략실 조준연
-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정두석
-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침해대응단장 임진수 △침해사고분석단장 심재홍 △사이버방역단장 서정훈 △팀장급 보임 △개인정보탐지조사팀장 안인희 △융합보안기술팀장 이재형
- ◆창녕군 <5급 승진> △농업기술센터 김중욱

부음

- ▲기세익씨 별세, 김기영(행정안전부 대변인)씨 병부상 = 18일 오후 11시30분,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02-2019-4000
- ▲최순애씨 별세, 장인수(전 오비맥주 부회장)씨 모친상 = 19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02-3010-2411

LGU+, 지능형CCTV로 전국 요양시설 안전 돕는다

노인중앙복지회·넷온과 MOU
다중 얼굴인식기술로 20명 감지
자동 모자이크로 정보 노출 없어

LG유플러스는 한국노인중앙복지회, 넷온과 함께 전국 요양시설에 지능형CCTV를 구축하는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LG유플러스와 인공지능 비전 인식 전문업체 넷온은 일반적인 CCTV와는 달리 인공지능이 영상 속 사람의 얼굴을 감지해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술로 개인정보 노출 없이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능형CCTV 솔루션을 요양원에 제공한다.

이 솔루션은 다중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최대 20명의 사람을 동시에 감지하고, 얼굴 트래킹 기술로 움직이는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요양원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인중앙복지회 산하 20개 요양원에 지능형CCTV를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 용산사에서 명홍철 넷온 대표, 권태엽 한국노인중앙복지회장, 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어르신의 자세 변화를 감지하는 'U+스마트레이더' 상품과 결합해 요양원 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품은 4분기에 출시하며, 요양원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요양원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직이는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요양원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노인중앙복지회 산하 20개 요양원에 지능형CCTV를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어르신의 자세 변화를 감지하는 'U+스마트레이더' 상품과 결합해 요양원 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품은 4분기에 출시하며, 요양원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요양원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우건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한국해비타트와 사회공헌활동
백정완 대표·신입사원들 봉사

대우건설이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는 활동이다.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포함한 2022년 상반기 신입사원들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홍설지 씨의 노후주택에서 내부 단열, 창호, 장관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했다.

홍설지 씨의 조부인 독립유공자 고(故) 흥가득 선생은 중국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온양에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지난 2009년 독립운동 유공이 인정돼 건국훈장 애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오른쪽)가 신입사원들과 함께 노후주택 개보수 공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족장이 추서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락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으로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한국해비타트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주

거복지전문 국제비영리단체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집짓기, 집고치기, 재난대응사업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2월 해비타트 측에 2억원을 기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7가구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진행 중이다. /김대환 기자 kdh@

신세계까사, 메이 머스크와 여성리더 도전 응원

글로벌 우먼 리더스 포럼 참여
'일론 머스크 모친' 메이 머스크
성공적 여성의 삶 방향성 제시

신세계까사(SHINSEGAECAS A)가 모델 겸 사업가인 메이 머스크(Maye Musk)와 글로벌 여성리더들이 차세대 여성 인재들에게 리더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도전정신을 응원하는 자리에 뜻을 함께했다.

19일 신세계까사는 최근 한국을 찾은 메이 머스크가 대표 연사로 나선 '글로벌 우먼 리더스 포럼'(WW D코리아 주최)에 참여했다.

메이 머스크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모친이자 국제적인 슈퍼모델, 임상영양사로서 일흔이 넘은 지금도 활발히 사회활동중인 사업가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세 남매를



신세계까사가 글로벌 여성 리더인 메이 머스크와 차세대 여성 리더들을 응원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메이 머스크(가운데)가 신세계까사의 대표 브랜드 '까사미아'의 베스트셀러 캠프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신세계까사

키우는 싱글맘, 모델업계의 나이 차별 등 숏한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도전 정신으로 이겨내며 지금의 자리에 이른 인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있다.
 신세계까사는 메이 머스크를 삶에 영감을 주는 아이콘으로 보고 이를 연계한 성공적인 여성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신세계까사는 지난해 월드 클래스 배우 윤여정과 함께한 광고 캠페인에 이어 공간을 압도하는 존재감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각 계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해당 분야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가진 아이콘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부사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노인들과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의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며, "LG유플러스는 지능형CCTV를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돌봄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요양시설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청사진과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서비스로 지속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불보자동차코리아
지구 환경지키기
플로깅 사전접수

불보자동차코리아가 지구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플로깅 행사를 진행한다.

19일 불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배우 김무열·윤송아 부부가 참여하는 '2022 헤이, 플로깅(Hej, Plogging)'에 앞서 한정판 플로깅 키트를 공개하고 사전 접수를 실시한다.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스웨덴어 '이삭을 줍다(Plock a Upp-플로카업)'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불보자동차코리아는 2019년부터 '헤이,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참가자는 약 1만명이다.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플로깅 행사에 앞서 판매하는 한정판 키트는 러닝 전문 브랜드 '브룩스'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티셔츠와 버려진 낙하산 소재를 재활용한 플로깅 가방 및 장갑으로 구성됐다.

반려동물이나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1인 가족 등 여러 트렌드를 고려해 ▲1인 가구를 위한 볼보 캠핑 체어 ▲반려동물을 위한 폐비닐 재활용 폼백 파우치 및 친환경 폼백 ▲다인 가구를 위한 폐지 활용 멸종동물 조립키트 등 스페셜 패키지를 추가 제공하며 한정판 키트 구매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플로깅 키트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볼보 라이프스타일숍'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 가능하며 총 300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양성운 기자 ysw@



불보자동차 '2022 헤이 플로깅' 포스터.